

# 스포츠 경쟁의 도덕적 정당화 담론

임석원\* · 손 환 · 차운성

**주제분류** 스포츠 윤리학

**주요어** 스포츠 경쟁, 패러다임, 도덕적 가치, 정당화, 공리주의

**요약문**

스포츠에서 올바른 행위란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적 삶에 적용되는 도덕적 행위 기준과는 다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본 논문은 스포츠에서의 올바른 행동이 사회적 삶의 그것과는 차별화 되면서도 그 근원에 있어서는 궤를 같이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물음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또한 사회적 삶의 세계에서는 법이라는 성문화된 규범으로 그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고 올바른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스포츠 상황은 사회적 규범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이에 대립할 수도 없다. 넓은 의미에서 스포츠 역시 생활세계의 범주에 속하므로 동일한 기준과 규범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각기 상이한 규칙과 특징을 갖는 것에 모든 점에서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스포츠 윤리가 사회 윤리와 어떤 점에서 유사한 근원과 토대를 갖고 있으며, 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면서 사회적 규범이 그러하듯 스포츠 윤리 또한 그에 고유한 도덕적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목하면서 논구할 것이다. 첫째, 경쟁 스포츠에 대한 도덕적 성격을 밝히고, 다음으로 좋은 스포츠 경쟁의 패러다임을 놀이 개념과 비교하면서 이를 선호 충족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논구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스포츠의 문화 도덕적 가치, 끝으로 스포츠 경쟁의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논증할 것이다.

---

\* 주저자 (안양과학대학)

## 1. 서론

스포츠에서 올바른 행위란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적 삶에 적용되는 도덕적 행위 기준과는 다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본 논문은 스포츠에서의 올바른 행동이 사회적 삶의 그것과는 차별화 되면서도 그 근원에 있어서는 궤를 같이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물음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또한 사회적 삶의 세계에서는 법이라는 성문화된 규범으로 그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고 올바른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스포츠 상황은 사회적 규범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이에 대립할 수도 없다. 넓은 의미에서 스포츠 역시 생활세계의 범주에 속하므로 동일한 기준과 규범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각기 상이한 규칙과 특징을 갖는 것에 모든 점에서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스포츠 경쟁은 여가활동을 통한 친목, 학교간의 친선 경기, 프로 경기로서 국가 간 대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경쟁 속에서 자기의 기질과 능력과 소질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탁월성에 대한 신뢰와 충족을 누림으로써 스포츠 경쟁은 윤리적으로 옹호될 것이라는 믿음 또한 저버릴 수 없다. 이러한 논의는 좋은 스포츠 경기를 특징짓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경기를 위한 규범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같은 규범은 원칙적으로 개인들이 실제로 대안적 행위 과정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어느 쪽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그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윤리학은 도덕의 본질과 근거에 대한 철학적 탐구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덕이란 말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표준, 규칙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윤리학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그러한 도덕적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밝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이 긍정된다면 그 근거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에 논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논구할 것이다. 첫째, 경쟁 스포츠에 대한 도덕적 성격을 밝히고, 다음으로 좋은 스포츠 경쟁의 패러다임을 놀이 개념과 비교하면서 이를 선호 충족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논구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스포츠의 문화 도덕적 가치, 끝으로 스포츠 경쟁의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논증할 것이다.

## 2. 스포츠 경쟁의 도덕적 성격

스포츠를 경쟁(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의 규칙들이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게임의 기술과 승패는 그 규칙을 통해 규정된다. 그리고 경쟁의 어원 즉, “Competition”은 ‘함께 노력하다’, ‘탐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물론, 어원적 해석이 경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적 논증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경쟁의 어원은 첫째, 어떤 것을 함께한다는 협동의 요소와 둘째, 그 누군가가 이미 하지 않은 어떤 것을 노력하고 탐구한다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경쟁의 본래의 의미는 ‘결여하고 있거나’ ‘성취할 수 없거나’ 하는 것들을 함께 노력하고 탐구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쟁자들은 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거나 탐구하기 위한 좀 더 온화한 양태의 상호부정에 의하여 점점 더 적극적인 협동적 정신의 경쟁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쟁의 의미는 게임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의 정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상호 부정은 기량과 숙련의 우월성을 외면한 난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와 함께 경쟁(게임)에 대한 존중은 규칙에 대한 존중을 함축하며, 스포츠의 규칙은 게임 활동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존중은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개념으로서 사실상 어떤 것을 존중한다면, 비판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판은 열려있어야 하고 공적이어야 하며 파괴적이기보다는 구성적이어야 한다.<sup>1)</sup> 또한 스포츠에 있어서 공정성이 경

쟁으로서의 스포츠로부터 파생될 수 없을지라도 스포츠의 테스트와 스포츠의 본성으로서의 경쟁은 공정성에 대한 접근에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크레츠머(Kretchmer, 1998)는 경쟁은 언제나 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선수들이 상대보다 우월한 상황을 이끌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이 경쟁자들이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보다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sup>2)</sup>

예를 들면 어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운동에 참여한다면 그들을 보고 경쟁적 상황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경쟁이란 동일한 스포츠 상황에서의 기량과 기술의 테스트이며 우월성의 입증인 것이다. 따라서 경쟁은 형식적 규칙과 실질적 에토스<sup>3)</sup>의 결합에 의해 그 의미가 규정되는 관점을 견지한다. 그래서 구성적이고 규제적인 규칙들이 그 게임의 에토스와 결합되어 경쟁의 원칙들을 실천하고 유연한 규칙 적용에 암묵적인 합의를 하게 된다. 즉, 특정한 수준에서 게임에 대한 에토스의 본성은 변화 가능한 경쟁자들 간의 합의에 대한 필연성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경쟁자들의 게임에 대한 태도는 경쟁이 행해지는 방식에 관한 자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무엇이 경쟁에서 공정하게 생각될 수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합의는 필연적인 것이다. 만약 선수가 시합을 통한 경쟁을 원한다면 그들은 경쟁의 정확한 본성에 이미 합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월성을 성취하려는 욕구와 이익에 대한 추구는 인간의 본성이며, 게임 활동이 추구하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쟁자들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실천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고 삶에서 가치 있는 것

1) R. Butcher & A. Schneider(1998), 32쪽. (In W. J. Morgan, K. V. Meier, A. J. Schneider, *Ethics in sports*의 쪽수로 표시한다. 그리고 J. W. Keating(1964), N. Dixon(1999), O. Leaman(1981)도 같은 형식에 따른다.)

2) S. Kretchmer, 'From Test To Contest: An Analysis Of Two Kinds Of Counterpoint In Sport',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II*, 1975, 32쪽.

3) 에토스(ethos)는 사회적 구성의 공유 규범으로서 관습적인 도덕적 합의를 내포한다. 곧 스포츠의 규칙이 도덕적 원칙으로서 보편성과 공정성에 기초되어야 하고, 정직과 신뢰와 같은 덕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 되어야 그 실현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경쟁적 실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천 그 자체의 즐거움에도 있겠지만 다른 참가자들과 특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천은 이익의 성취뿐만 아니라 우월성의 기준과 규칙의 준수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실천은 현재 부분적으로 정의하는 기준에 대한 자신의 태도, 선택, 선호도, 취향에 따르는 활동이다.<sup>4)</sup> 이러한 실천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천이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생존하며,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는 실체를 지칭한다. 그러나 그 변화는 내부로부터 오며 전통에 의해 형성된 맥락 속에서 실현 되는 것이다. 물론 경쟁은 스포츠의 본질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쟁은 상대방을 이긴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육체적 활동을 즐기기 위해 또는 친구를 사귀거나 일상적인 일로부터 벗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과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상대편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운동능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농구 선수는 상대편을 패배시키기 보다는 뛰어난 개인기에 더 가치를 둘 수도 있고 아마추어 골퍼는 피나는 연습 후에 자신의 목표가 가능한 완벽에 가까운 스윙을 하는 것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sup>5)</sup>

그렇다면 경쟁이란 무엇인가?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합리적으로 조직화된 규칙 안에서 승리하려는 시도이다. 곧 경쟁은 정해진 규칙의 범위 안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조직화된 규칙과 전술적 규칙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전자는 농구에서 어떻게 점수를 얻고, 규칙위반이 어떤 것이고 워킹이 무엇인가 하는 규칙이다. 후자는 어떻게 경기를 잘

4) A. MacIntyre, *After Virtue* (2nd Ed.),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190쪽.

5) R. L. Simon, *Fair Play: Sports, Values, And society*, Boulder: Westview Press, 2004, 18쪽.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인 것이다. 만약에 어떤 개인이 스포츠에서 경쟁을 한다면 목표는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이기는 것이다. 엄격히 말해 승리라는 것이 규칙에 의해 정의되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르게 속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실제로 속이면서 경기의 규칙에 저촉되지 않고 이긴 선수는 자기가 경쟁자보다 우수하다고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에서 꼭 이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sup>6)</sup>

또한 경쟁의 목표가 승리라는 관념적 주장과 경쟁자의 우선적인 참가 동기가 승리 욕구라는 정신적인 주장을 구별해야 한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경쟁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참가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경쟁에 수반되는 요소가 승리만은 아닌 것이다. 스포츠 경쟁의 비판가들은 경쟁이 본래 비도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가치를 표현하며 서로의 투쟁심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경쟁의 지지자들은 경쟁의 도덕적 가치를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시몬은 스포츠 경쟁의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논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sup>7)</sup> 첫째는 사회전반이나 경쟁자 자신에게 미치는 경쟁이 실제적 좋음과 나쁨의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쟁의 영향이 아니라 경쟁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성격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곧 경쟁이 좋은 인격을 형성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스포츠에 있어서 경쟁을 평가하는 방법은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확실히 운동수행이 좋았느냐 또는 나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도덕적 평가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전략은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주의적 태도는 공리주의 윤리론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로서 행위의 동기가 우리에게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평가의 척도는 유용성과 효용성 그리고 사회적 시인과 비난이 그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 역시 결과의 좋음

---

6) 같은책, 24쪽.

7) 같은책, 20쪽.

과 나쁨도 그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다.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은 경쟁이 이기적이고 자기 본위적이라는 것이다. 경쟁적 행위는 체로섬 게임이기에 한사람의 승리는 다른 사람의 패배를 의미한다. 곧 경쟁의 내재적 목적은 자신의 승리와 상대방의 패배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스포츠 경쟁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경쟁에 참가하는 선수나 관중이 모두 스포츠 경쟁을 즐기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 스포츠 경쟁으로부터 적극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의 함양이나 국가 사회적으로 시인되는 긍정적 인격의 형성이 스포츠로부터 성취된다고 보는 교육의 간접적인 효과도 부인할 수 없다.

### 3. 좋은 스포츠 경쟁(놀이)의 패러다임

호이징가는 그의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란 저서에서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스포츠의 습관이나 규칙은 인생의 보통 규칙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 또한 스포츠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그 자체의 새로운 법규가 중시되는 것이다. 동물의 놀이에 있어서조차 중대한 상해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 규제를 가하고 통제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인간의 여러 스포츠에 있어서 규칙의 정도나 복잡성은 변하는 것이다. 놀이라는 아이의 스포츠에 있어서는 복잡함이라는 것이 거의 없지만 어른의 스포츠에 있어서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sup>8)</sup>

니체는 놀이를 권력에의 의지로서 인간의 무-목적적이고, 비합리적인 해프닝과 그가 권고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삶의 중요한 은유로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마음속에 담고 있던 놀이의 의미는 규칙에 지배되고 목표지향적인 운동선수의 놀이보다는 차라리 무-목적적이고, 즉흥적인 아이들의 놀이에 가깝다. 니체는 유명한 헤라크리투스의 원 두 번째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성과 소멸, 건축과 파괴는

8) P. McIntosh, 『페어플레이』, 하남길 옮김, 1997, 162쪽.

아무런 도덕적 책임도 없이 영원히 동일한 무구의 상태에 있으며, 이 세계에는 오직 예술가가 몰입하고 있는 유희만이 있을 뿐이다. 어린아이와 예술가가 놀이를 하듯 영원히 생동하는 불은 순진하게 놀이를 하면서 세웠다가 부순다.” 니체 이후 마르틴 하에데거, 한스 게오르 가다머,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등을 포함한 다수의 유럽 철학자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어린이 놀이의 은유를 채택하였다.<sup>9)</sup>

철학의 중심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특징적인 놀이의 관념, 스포츠의 부가된 논리가 있으며, 재미있고 비도구적인 태도와 함께 ‘놀이의 자세’로 임할 때 스포츠가 최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놀이가 도덕적으로 탁월한 인간의 노력이라는 견해와 그러한 놀이가 실현될 때 스포츠가 최상이 된다는 주장은 그 나름의 호소력을 지니며 의심의 여지없이 스포츠 철학과도 잘 부합한다. 20세기에 하이데거, 푸코, 그리고 데리다와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채택된 어린이 놀이 비유에 추가해서, 우리는 다른 철학자들이 그들의 사유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위한 비유로서 스포츠와 게임들을 이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sup>10)</sup>

스포츠 경쟁은 선수와 후원조직에게 있어 서로 일종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스포츠 참여자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비판적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운동선수들 간의 능력과 힘을 지배하는 공격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힘과 성취 모델’에 따라 스포츠를 기술하고 있다. 이 경우 스포츠에서 상대방 선수는 경쟁자이자 적으로 간주되며, 운동선수의 신체는 체육적 성취와 승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로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의 놀이와 경쟁에 관한 논쟁은 그 발단부터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실천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성에서 출발하여 올바른 경쟁에 대한 규범적 논증은 무엇보다 이성적 본성인 합리성의 실현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다.

9) D. A. Hyland, 『스포츠 철학』, 송형석·이학준 옮김, 북스힐, 2006. 125쪽.

10) 같은책. 같은곳.

그렇다면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좋은 스포츠 경쟁을 특성 짓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앞서 페어플레이를 위한 규범을 형성함에 있어 자발적인 토대 위에 경기에 참가한다는 전제를 제시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경기에 참가하는 것과 참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선택권은 그들에게 있다. 그러나 일부 경기 참가자들은 기쁨과 즐거움, 승리, 도전, 흥분의 경험 같은 활동 자체의 경험적 측면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다. 다른 참가자들은 건강 증진, 사회적 네트워크와 대인관계 형성, 신망과 이득 달성과 같은 활동 외적인 것에 대한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경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어떤 경기자가 가능한 최고선에 따른 자신의 의도적 목적을 완전히 실현시킬 경우, 그 경쟁이 훌륭하게 치러지리라는 생각은 합리적이다.

대부분의 현대의 공리주의 이론들에서, 선은 예를 들어 만족이나 선호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정의된다. 도덕적 진퇴양난에서, 올바른 선택은 적어도 어떤 대안적 선택만큼 많은 선호나 만족을 가져온다. 이때에 행위의 선택이 그 결과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록 공정성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주된 관점은 본질적으로 결과주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결과주의적 추론의 잠재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에 따라 선호-공리주의에 기초한 일반적인 배경을 “관련된 모든 참가자 사이에 평균 선호-만족을 극대화하라”와 같은 규범으로 공식화할 수 있다.<sup>11)</sup>

공리주의적 전통에 따르면 행복이나 복리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행복도 다른 사람의 행복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는 보편적인 생각과 결합된다. 고전적 벤담의 쾌락주의, 밀의 공리주의, 무어의 관념적 공리주의와 같은 근본적 공리주의 이론들은 ‘선’을 쾌락 또는 행복과 같은 실제적 정신 상태라고 간주한다. 세퍼에 따르면 공리주의의 핵심적인 생각은 “세계를 살기에 가장 최고의 가능한 곳으로

11) S. Scheffler, *The Rejection Of Consequentialism*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1쪽.

만드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본질적 선으로서의 선호의 만족 또는 개인의 안녕으로 정의하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행동을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단순하고 상식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그런데 고전적 공리주의가 갖는 문제는 그것이 관련된 모든 집단에 대해 일어나는 순수 효용의 총체적 합에 대한 극대화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효용이 어떻게 집단사이에 할당되는가에 관한 고려를 포함하지 않게 된다.

스포츠에 대해서 즐거운 자기-목적적 활동이라 보거나, 또 현대 스포츠를 퇴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비판적 견해도 있었다. 게다가 스포츠를 일종의 전쟁쯤으로 여기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분석에 입각해서 보면 좋은 스포츠 경쟁의 이상적인 패러다임의 사례는 선수들 간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며 행위-지도적 선호는 본질적으로 내재적인 요소임이 분명하다.

스포츠와 놀이와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호이징가의 호모 루덴스(Homo Ludens)라는 패러다임적 작업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첫 장에서 놀이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관하고 있다.<sup>12)</sup> 놀이의 첫 번째 특징을 자유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놀이는 신체적 요구에 의한 결과도 아니며, 게다가 놀이라는 어떤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놀이의 두 번째 특징으로 여가를 들고 있다. 놀이는 일상생활의 요구 밖에서 자유의 영역을 구성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놀이에 대한 호이징가의 생각은 실제적인 자유의 생각과 유사하다.

호이징가에게 있어, 자발성의 기준은 선수가 약속을 지키고 지키지 않 고의 여부를 선택함에 있어 비강제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왜 놀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호이징가의 대답은 우리가 놀이 자체를 즐기기 위해 놀이를 한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노동’과 달리 ‘놀이’는 도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놀이 외적

---

12) J. Huizinga,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Boston: The Beacon Press, 1955, 18-21쪽.

인 어떤 상황을 성취하기 위해 놀이하지 않는다. 만일 스포츠 고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필요한 장애’에 대한 비강제적인 수용에 따라 경쟁을 수행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스포츠 경쟁이 ‘놀이적 태도’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sup>13)</sup>

놀이로서의 스포츠 경쟁은 분명한 구조와 질서를 요구하며 특히 기회와 행운을 위한 최적의 역할의 장이 된다. 선수의 입장에서는 목표의 달성이라는 성공을 기대하지만, 놀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필시 결과에 대한 긴장감과 불확실성에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 이론가들은 놀이의 경험적 가치가 심오하며 사실상 근본적인 존재론적 차원을 지닌다는데 동의한다. 따라서 스포츠 경쟁을 본질적으로 놀이라고 볼 수 있고 스포츠의 가치는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스포츠 경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단체가 가장 올바른 경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가능한 최상의 정도로 이기기 위해서는 (공유된 정당한 에토스에 따라) 경쟁하는 선수를 위한 규범을 실현하는 것이 그 하나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유사 선호 강도와 유사 성취 잠재력을 가능한 극대화하기 위한 선수들의 경쟁을 실현하는 것이다.

#### 4. 스포츠의 문화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음미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스포츠는 보편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스포츠의 권태로움도 역시 그 비중이 크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실천으로서의 스포츠와 제도로서의 스포츠의 개념이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맥킨타이어는 실천(practice)이란 특별한 규칙에 의하여 활동이 통제되며 그 활동은 내재적 목표와 기준에 의해 특화되어지는 것이고,

13) B. Suits, ‘The Elements of sport’ in R. G. Osterhoudt(ed.) *The Philosophy of Sport*, Springfield : Charles C. Thompson, 1973, 49쪽.

제도는 외재적 목표인 권력, 지위, 명예, 그리고 금전적 이득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규정한다.<sup>14)</sup> 스포츠의 실천은 자신의 부와 목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의 부와 목표의 충족을 가능하게 해준다. 제도로서의 스포츠는 큰 틀로 볼 때 관료적 조직 즉 상당히 인위적으로 조직화된 스포츠로서 단순히 개인의 만족감을 위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포츠를 상품화하고 선전을 강화하여 이윤추구의 원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재화의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으로서의 스포츠는 매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모든 인류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고 또 기대된다고 하겠다.<sup>15)</sup>

물론 제도적 스포츠는 대개가 특정한 정치적 요소와 사회 경제적인 압력과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어떤 사회학자들이 스포츠를 사회의 창 혹은 소유주라고 하거나, 스포츠가 어떤 특정한 사회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언급은 생경한 주장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스포츠를 사회의 실천과 문화의 구조화된 관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볼 경우, 스포츠는 보여지고 이해되어지는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처한 상황의 고려도 주요한 판단의 수단이 된다. 이런 이유로 사회모습, 종교, 경제, 정치성향 등에 대한 문화적 차이점이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스포츠에 관한 상대론적 관점을 생성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된 진술들이 참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처럼 상대론의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예시들에 관한 묘사는 매우 정확한 논제들이라고 생각된다. 위의 진술들을 종합해 보건대 상대론이란 문제의 발생과 해결이 오직 하나의 내용과 결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의 갖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연 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대론 외에는 없는가 하는 의문

14) A. MacIntyre, *After Virtue* (2nd. ed.),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5, 131쪽.

15) P. J. Arnold, *Sport, Ethics & Education*, Cassell, 1997, 2쪽.

점이 생겨날 것이다. 물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규칙의 해석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일반적인 스포츠 행동인가 하는 관점 또한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많은 인종과 문화로 나뉘어져 있다. 비록 20세 후반 들어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투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를 패배시킨 결과 정치적인 대립은 약화되었지만 문화의 충돌은 여전하다.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 문화의 혼재 시대에도 실천으로서의 스포츠의 가치는 그것을 초월한다. 또한 이 실천으로서의 스포츠의 가치는 이데올로기처럼 인간에게 신념을 제공하고 또 이상과 규범적 가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또한 문화적 차이점을 능가하는 가치 곧, 인간의 실천으로는 대부분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것은 스포츠의 가치가 구체적 물건으로써 우리의 육안에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신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포츠가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를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은 스포츠의 제도적 측면인 국제 올림픽 위원회나 세계 스포츠 연맹 같은 것들이다. 더욱이 올림픽 현장은 스포츠가 추구하는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윤리적 원리들과 스포츠를 통한 상호간의 끈끈한 우애, 결속력, 강건한 정신 그리고 페어플레이에 관한 신념들을 확고한 보편적 인식으로 바꾸어 준다.<sup>16)</sup> 예를 들어 윈블던 경기는 테니스 연중행사에 속해 있는 전 세계적인 경기이다. 이 경기는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 의해 존경과 신뢰로서 받아들여지는 시합이다. 이와 같은 스포츠의 실천을 통해 인간적 덕의 성숙함을 가져오려는 시도는 모두의 염원이며, 국제연맹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국제스포츠연맹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어떻게 하면 가장 명쾌하게 규칙을

16) 테니스 경기를 함에 있어 그 경기가 봄베이(인도의 항구도시)에서 행해지던지 아니면 보스턴에서 펼쳐지던지 간에, 국제적으로 구체화 되어 지배력을 갖는 동일한 규칙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기술과 개념이 동일해야 한다. 서브, 에이스, 발리, 드롭샷 그리고 lob은 테니스의 독특한 기술과 전략을 위해 채택 되고 보편적인 지식의 축적으로 형성된 것들이다.

해석할 수 있을까를 논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던지 모든 참가자들에게 모순 없이 스포츠가 잘 적응되고 진행될 수 있을까를 논의한다. 스포츠의 실천은 어떤 환경이나 문화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규칙이 적용됨을 보여주어야 한다.<sup>17)</sup> 위의 이러한 관점을 미루어 보면 상대주의 보다 제도적으로는 보편주의가 더 비중 있게 환영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계의 젊은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가 가치 있는 실천이고 그것을 추구할 때 만족감을 느끼도록 가르쳐지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그 결과로 청소년들이 스포츠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그런 과정의 산물이 앞에서 진술한 스포츠의 고귀한 모습에 부합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영향력의 행사야말로 올림픽 정신이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견해는 문화적 상대주의에 윤리적 상대주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이 스포츠 실천을 수행할 때 그 스포츠가 본래적으로 요구하는 도덕의 준수를 그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스포츠의 기술과 성격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덜함이 없이 의무를 부과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들은 사회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의 스포츠 사상이라는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것은 일방적이고 그리고 스포츠가 사회에 연관되는 가치에 관해 환원주의적 견해를 가진 부류들이 보이는 성향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제도가 단지 그 제도의 모습 자체를 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에는 이 신념이 지나치게 낙관적일지라도 제도로서의 스포츠가 끼치는 사회적 비중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만약 사회의 개선을 위해 스포츠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스포츠의 가치를 구현함에 있어 최선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의 개선에 스포츠의 열의를 쓰지 않는다면 스포츠의 열정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스포츠가 사회개선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하면 스포츠는 그 자신의 실천으로서의 선명성을 수반해야 한다. 이 선명하고자 하는

17) P. J. Arnold, *Sport, Ethics & Education*, Cassell, 1997, 3쪽.

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 가지 방법은 포상의 조건과 내재적 가치를 융화시키는 것이다.<sup>18)</sup> 다시 말해서, 포상조건의 가치는 장점, 봉사 혹은 어떤 희망하는 것의 구현을 용이하게 하는 활동에 대한 결과로 심중에 가지고 있던 목적과 그것의 결과를 통해 지위를 달성함을 그 조건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운동은 체력 향상을 의미하고 선명성은 어떤 희망을 제공한다. 그리고 법은 정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또한 내재적 가치는 아마도 최고의 선과 행동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에 연관된 가치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물음에 관한 스포츠 상황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고 공감할 만한 가치는 유의미한 것 혹은 목적적인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스포츠가 의미적인 것일 때 스포츠의 표면적인 목적과 목표는 내재적 구성과 열의를 추구하는 원동력으로서 간주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특정한 사회와 문화에서 발생할 때 그것에 의하여 반영되는 가치로서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다른 한편 스포츠가 호감의 완성과 그 자신의 가치를 외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기량, 탁월성, 윤리적 원리 그리고 도덕적 덕목들을 갖추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외재적 문화와 사회의 영향에서 구속됨 없이 존재할 것이고 그것과 접촉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 스포츠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여 진다면 그것이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던 문제가 없을 것이다.<sup>19)</sup>

이러한 스포츠의 개념은 사회의 다양성을 투영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이다. 또한 그것은 사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체화를 보증하기 위해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가 주는 거의 무방비적인 것으로서 그들은 스포츠를 민주주의, 자유, 평등, 개인주의, 성취, 자아발달 그리고 애국심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내적 역량 향상을 위해 스포츠는 그 향유자에게 이윤과 지위 권력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이는 스포츠가 종교, 정치, 흥행사를 아우르며 영향을 주는 커

18) 같은책, 5쪽.

19) 같은책, 5쪽.

다란 사업체인 것과 관련이 있다. 에드워드에 따르면, 대부분 스포츠의 신조는 “경쟁을 통한 개인적 성취 달성”이라고 말하고 있다.<sup>20)</sup>

최근 스포츠에서 사회와 관련해서 몇몇 흥미로운 문제가 관찰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스포츠의 수행이 비탄(낙담)과 같은 외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견해는 바로 스포츠의 내재적 가치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교체되었다는 것이다. 이 외부적 요인은 악의적 요소가 있어 스포츠의 내재적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붕괴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첫째, 스포츠는 개념적으로 상대주의로부터 가능한 한 그 자신이 자유로우며 함축적 동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여타의 교육기관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체육 수업에 있어 형식적인 면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의 성취는 개인의 성장을 꾀할 것이며, 이것의 효과는 전체의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스포츠가 우리 주변에서 점할 위치는 일단의 과학 같은 형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특색 있고 보편적 형태에 위치할 것이라고 본다.<sup>21)</sup>

지금까지 강조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부연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스포츠의 내재적 도덕 가치들에 대해 한층 성숙되고 선명해진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스포츠의 개념과 수행은 도덕적 가치를 포함한 내재적 가치로의 고려를 외면할 수 없다. 이것은 스포츠가 윤리적 원리와 도덕의 형태에 관심이 있음을 의미한다. 논자가 본 단락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적 관점보다는 보편적 관점에서 스포츠의 도덕적 가치의 보편성과 도덕적 규범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스포츠에 있어 윤리적 상대주의가 접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문화,

---

20) H. Edwards, *Sociology of sport*, Homewood, Illinois : The Dorsey Press, 1973, 334쪽.

21) P. J. Arnold, *Sport, Ethics & Education*, Cassell, 1997, 5쪽.

도덕적 가치의 옳음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보편적 원리들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으며, 이런 관계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그 적용의 용이함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스포츠의 도덕적 객관주의의 형태는 공정성이 보편적 타당성의 형태로서 가치와 행동을 영위함을 유지 시켜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참여자들은 도덕적 요구들을 따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sup>22)</sup>

스포츠는 문화적 강대국들에 의해 잠식당해 때로는 부당함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가치 있는 수행은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의 상태에서 잉태되어 나옴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를 수행하기 위한 참가자들은 사회 각처에 속한 이들이다. 각각의 성원들이 모두 정당하지는 못 할지라도 그들은 스포츠의 수행에 있어 책무감에 의해 헌신적으로 행동하며 내재적으로 도덕적인 것을 포함하는 가치를 지킬 것이다. 스포츠의 도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스포츠는 도덕 보편·주의적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가치는 모든 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실증적으로 기대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스포츠의 발생은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만큼 비례해서 각양각색으로 발생되겠지만 도덕적 가치의 보장과 구체화는 비교적 그것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sup>23)</sup>

그러나 이 개념에 대한 수행에 있어 다양성을 요구하지는 않을 지라도 확실히 문화적 차이에 대한 해석의 근거와 이유를 찾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는 도덕적 수행으로서의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에 일관성 있는 노력을 보이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스포츠의 도덕적 기초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도덕에 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에 대하여 아놀드는, 스포츠 도덕은 보편적이고 공명정대한 원리를 채택해야 한다고 보며, 그 규칙은 누구에게나 치우침 없이 오직 공정성만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sup>24)</sup> 이런 경로로 정해진 도덕성,

22) 같은책, 같은곳.

23) 같은책, 6쪽.

24) 같은책, 5쪽.

공정성, 보편성 같은 원리들은 일종의 지침을 제시한다. 그 지침이란 것은 스포츠가 일어나는 실제적 상황에서 옳음과 그름의 이해가 상호 충돌할 때 스포츠의 효과적 흐름을 돕기 위해 그 상황을 조정해주고 또한 결정을 내림에 근거를 제시해 준다. 물론 이성적이며 목적성을 가진 공식화된 규칙들은 공론화된 논의를 거쳐 대중의 이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스포츠에서 자율적인 도덕성은 스포츠 수행에 있어 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그들이 스포츠의 규칙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도 스포츠의 도덕성은 그 수행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 등 자신들의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기를 요구한다. 대체로, 도덕성이 함양된 경쟁자는 스포츠의 도덕성이 특정한 활동에서 규칙의 복종뿐만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성향에 대해서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도덕적 규칙들은 그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단순히 그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대한 신뢰도 필요하다.<sup>25)</sup> 스포츠의 규칙을 기초하려고 할 때에 보편성과 공명정대함이 스포츠 윤리의 골격을 구성해 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기대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규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스포츠의 도덕성에 있어 용기, 정직 그리고 동정심으로서의 덕은 스포츠 규칙에 대해 기꺼이 준수하는 것만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sup>26)</sup> 물론 스포츠에서 도덕적 삶은 앞서 열거한 미덕들의 존재 없이는 존립근거가 미약해 지므로 그것들은 스포츠의 수행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맥킨 타이어에 따르면 공정성, 우정, 아량으로서의 덕들은 스포츠 수행에 있어 아주 좋은 특징일 뿐만 아니라, 내재적 목적들과 가치들을 체득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더욱이, 그것들은 스포츠가 외재적 고려사항(권력, 지

25) 같은책, 같은곳.

26) R. C. Solomon, Ethics: A Brief Introduction. New York: McGraw-Hill. 'A Sportsmanship Brotherhood' (1926) Literary Digest, 88(27 March), 1984, 15쪽.

위, 위세, 돈)들로부터 침해되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27)</sup>

도덕이론에서 칸트주의자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의 형식은 위의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 적절한 입장을 제공해 준다. 칸트주의자의 견해는 보편성과 공명정대함이 의무, 책무 그리고 공정성을 어떻게 근본적 원리로서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이해를 제공한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는 개인 개발에 견해를 제공한다. 여기서 개인의 개발이란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덕들 다시 말해 용기, 정직, 정의 등을 달성함을 뜻한다. 이와 같이 달성된 덕들은 수행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과정을 거치어 인간 자신의 복지뿐만 아니라 크게는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도덕적인 덕이 잘 함양된 스포츠 참여자는 그가 행동을 할 적에 비록 규칙에 의해서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실로 지향해야 할 행동을 구체화할 것이다. 관용으로서의 덕들, 담대함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것들에 의해서 동기화된 행동들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의 행동을 우러러보게 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수행으로서의 에토스와 그 본질을 특성화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sup>28)</sup>

##### 5. 스포츠 경쟁의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

도덕은 옳고 그른 행위뿐만 아니라 좋고 나쁜 성격과도 관련된다. 도덕 판단은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의 동기, 이유, 성품에 대해서도 내려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고의적으로 해칠 때 그 행동은 그르다고 생각되며,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돕는 행동은 옳다고 생각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든 행동, 동기, 그리고 성품에 관한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도덕규범을 적용한다. 도덕규범이란 행위의 규칙이거나 평가의 표준이

27) A. MacIntyre, *After Virtue* (2nd. ed.),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5, 191쪽.

28) P. J. Arnold, *Sport, Ethics & Education*, Cassell, 1997, 7쪽.

라 할 수 있다.<sup>29)</sup> 때문에 규범 윤리적 이론들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일련의 시도들로 구성된다.<sup>30)</sup> 이러한 도덕이론들, 즉 행위자들 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이론들은 적어도 두 가지의 상이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들은 제각기 좋은 것 또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견해를 제시한다. 물론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좋은 것에 관해서 말을 삼가 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그 이론들은 제각기 우리가 우리의 행위 속에서,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어떤 속성들이 실현되기를 원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그 나름의 견해를 제시한다.<sup>31)</sup>

그러한 도덕이론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때때로 가치론 또는 좋음(good)에 관한 이론으로 불린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흔히 좋음에 관한 이론과 대비되어 옳음(right)에 관한 이론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어떤 속성들이 가치 있는가에 관한 견해가 아니라 개인과 제도 양 차원의 행위자가 가치 있는 속성들에 대한 응답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견해이다. 이 물음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도덕이론은 보통 두 종류, 즉 결과주의적 이론과 비결과주의적 이론으로 또는 (고전적인 용어를 쓰자면) 목적론적 이론과 비-목적론적 이론으로 나뉜다. 비-목적론적 이론은 간혹 의무론적 이론과 동일시되거나 의무론적 이론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sup>32)</sup>

---

29) P. W. Taylor, *Principle of Ethics*, Dickenson Publishing Company, 1975, 1-2쪽. 예를 들면 도덕은 사회의 규범과 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치들의 하위 집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도덕적 규범과 가치들은 기본적 가치라고 간주된 것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상호 작용하여 조절된다. 서로 충돌할 경우 그것들은 통상 다른 사회적 규범을 뒤엎게 된다.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중요한 선들과 책무들이 할당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약속과 계약의 문제에서 서로에게 관련을 맺는가를 규정한다. 도덕적 규범을 깨는 것은 책임과 같은 내적 제재와 비난과 같은 외적 제재로 이어진다.

30) 같은책, 같은곳.

31) 같은책, 같은곳.

칸트의 윤리학은 의무론적 이론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에 속한다. 그에 따르면, 한 행동이 올바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그 행동이 다소 우연적 욕망과 대조적인 것으로서 순수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만 합리적인 인간이 준수하게 되는 도덕 규칙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성의 요청은 사회적 맥락과 개인들의 차이와는 독립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칸트학파의 도덕은 보편성에 의존한다. 더구나, 행동이 도덕적으로 선하기 위한 조건은 행위자가 선의지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칸트는 정언명법에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 한다: “일관된 보편법칙으로 의도될 수 있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 하라!” 윤리 이론을 논의할 때, 결과주의와 비-결과주의와 같은 서로 다른 이론적 전통 가운데 어느 하나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자주 부딪치게 된다. 이때에 규범윤리 이론들에 대한 비교와 그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이루어 질 수 있는가? 롤랜드는 이것을 메타-윤리적 질문이라고 주장한다.<sup>33)</sup> 메타윤리학은 규범윤리학의 기본 가정, 기초 개념, 정당화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객관적인 도덕적 실재가 존재하고 윤리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이른바 도덕적 실재론자들은 그러한 진리들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상대론자들과 그리고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해왔다. 인식론적 비-인지론자들은 도덕적 진술들이 참이나 거짓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도덕적 지식과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인지주의자들을 비판해 왔다.<sup>34)</sup>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질문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다. 롤랜드는 이러한 추세는 우리가 윤리적 단어들과 표현들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분석을 다루거나, 도덕적 논증들에 대한 논리학, 소위 의무논리를 좀 더 실용주의적으로 다루는 언어적인 접근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윤리적 분석은 도덕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에

32) 같은책, 같은곳.

33) S. Loland, *Fair Play in Sports*, London & New York, 2002, 19쪽.

34) Ibid, 20쪽.

대해 거의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스포츠 경쟁이 불가피하게 도덕적 판단과 결합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정당성과 같은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한, 우리는 ‘비중 있는 윤리적 개념들’, 즉 일상적 도덕에서 행동을 지도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도덕적 이해와 믿음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도덕적 관심이란 도덕적 문제들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을 말한다. 여기서 판단의 공정성은 모든 참여자들의 서로 충돌하는 욕구와 이해관계들이 과연 인정될 수 있으며, 또 참여자들이 관점 자체에서 고려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의존한다. 무엇인가를 도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상호 주관적 상관관계로부터 서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sup>35)</sup> 공정한 경기에 대한 해석 역시 그와 관련한 규범적 전제들을 보다 더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 행위에서의 도덕적 추론의 역할, 일련의 도덕적 규범들이 근거하게 될 도덕 원리들의 형식화 등에 대한 명료화가 이루어져 한다. 왜냐하면 규범윤리학은 규제적이며, 행위-지도적 힘을 가질 뿐 아니라 선택에 따른 도덕적 책임에 대한 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임의 문제는 인간의 자유와 근본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유와 최소한의 개념은 만일 우리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sup>36)</sup> 도덕 행위자의 선택은 인과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이 가진 기본적인 신조이다. 자유주의자가 이러한 입장을 택하는 이유는 완전히 결정론적인 세계에서는 도덕적 책임이 있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만일 모든 사건 - 모든 인간의 선택과 행동을 포함해서 - 이 원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행위자 자신의 통제력을 넘어서는 과거의 조건의 불가피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행위자는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35) J. Habermass,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Tran., C. Lenhart And Shierry Weber Nicholson), Cambridge: Poity Press, 1991, 152-153쪽.

36) S. Loland, *Fair Play in Sports*, London & New York, 2002, 22쪽.

정당하게 책임질 수 없고 또 그로부터 일어난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없다. 자유주의자는 도덕적 책임을 긍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정론의 원리를 부정한다.<sup>37)</sup>

모든 도덕적 논쟁들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해석에 기초한다. 최소한의 해석은 우리가 비강제적인 선택에 대한 잠재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실제적 자유라는 생각을 갖기는 하지만 반드시 행동에 대한 개인적 이해를 함축하지는 않는다. 스포츠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에토스에 대한 논의에서 강조되듯이, 인간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대한 규범들에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책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비강제적 선택과 개인의 책임에 관한 잠재성이 개발되고 육성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가치들, 규범들, 행동들에 걸친 사회적 의사소통에 있다.<sup>38)</sup> 그러나 자발적 선택이 물론 언제나 도덕적 선택은 아니다. 그는 주관적 이성 때문에 행동할지도 모른다.

칸트의 전통은 이성을 욕망과 혐오와는 독립적으로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윤리적 규범의 자율적 원천으로서 간주한다. 우연적 욕구와 정서로부터 자유로운 ‘순수 실천 이성’은 정언명법의 토대가 된다. 즉, ‘보편적 법칙으로서 일관되게 의도될 수 있도록 단지 준칙에 따라서 행동하라!’ 그러한 격률에 따르는 목표와 행동의 선택은 우리의 본성을 자유롭고 합리적이고 도덕적 존재로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칸트의 기본적인 생각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이 수용

37) P. W. Taylor, *Principle of Ethics*, Dickenson Publishing Company, 1975, 156쪽.

38) 심판들이 규칙의 위반을 감지할 수 없을 때, 벨트 아래를 가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그러한 에토스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처한 권투선수를 생각해 보자. 그가 경기에 임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설명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악행을 제거하거나 벌을 받아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보상할 필요는 있다. 운동선수들의 행동은 그 때 바로 그곳에서를 의미하는 ‘액면 가격’에 의해서 대부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포츠 공동체에서, 운동선수 자신에 대한 책임은 공유된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좋은 펀치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벨트 아래를 치는 것에 대한 벌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권투는 경쟁적 스포츠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할 원리들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들이 도덕 법칙<sup>39)</sup>을 구성한다. 그런데 단순히 그와 같은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옳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sup>39)</sup> 반면에 흄으로부터 유래된 자연주의적 윤리이론의 전통은 이성을 주로 ‘정념의 노예’로 간주한다. 비록 이성이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고 세계를 다루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발견하는 필연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도덕에 의하면 이성은 ‘완벽하게 비활성적’이다. 흄에게는 도덕이 이성이 아닌 감정에 기반한다. 도덕은 ‘도덕적 감정’을 구성하는, 감정이입과 동정심과 같이, ‘도덕적 감성’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논자는 두 가지 전통을 동시에 받아들여 스포츠 윤리의 정당성을 논증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사회화, 규범의 내면화, 행동의 선택은 전체 인간-열정, 욕망, 감정, 이성을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도덕적 행위는 도덕적으로 이해 가능한 환경에서 일차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된다. 그리고 도덕 교육이 성공할 때,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복잡한 요인들은 도덕적으로 내적 동기에 기반하여 통합된다고 본다. 윤리적 담론에서 일련의 이론적 가능성은 공정한 경기에 대한 규범이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합리성은 그 자체로 규범적 개념이므로, 어떤 선택에 대해서도, 만일 그것이 대안 보다 합리적이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사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더불어 현명한 것과 관련되며, 아마도 이러한 견해의 가장 유명한 제안자인 흄스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기초적 근거는 자기보존이라고 주장했다. 삶이 ‘외롭고 가난하고 더럽고 마치 짐승과도 같이 짧은’ 무정부주의적 ‘자연 상태’의 비참함은 사회 계약의 성립에 도달했고, 그것에 의해서 개인들은 합리적인 사리에 기반을 둔 평화로운 상호작용의 규범들, 즉 실제로는 그들에게 보다 좋거나 나쁜 지식에 동의한다. 그러한 해결은 모든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문제가 있다.<sup>40)</sup>

39) J. Harman, *The Nature Of Mor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72쪽.

어떤 합리적 이기주의자가 하나의 스포츠 경기에 관해서 의도적 목표를 상정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이기주의자는 경기는 구성적 규칙들에 대한 하나의 공유된 해석, 즉 에토스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그 이기주의자의 의도적인 목표가 실현되면, 그 에토스와 일치하여 행동하는 계약에 대해 다른 참가자와 함께 서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계약 또는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구성원인 단체에서 공유된 에토스는 실제로는 가치가 없다. 이기주의자들이 그것들을 즐기는 한 그것들은 경기를 실현하는 완전히 실용주의적 장치이다. 여기에는 원칙적인 에토스 위반에 대한 어떠한 논증도 없다. 만일 이것이 효과적이라면 이기주의자는 규칙의 파괴를 피할 것이다. 규칙을 파괴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이기주의적 행동은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적 행동에 기생적이다.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자신의 몫을 기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무임 승객’이다.<sup>41)</sup>

그러나 합리적 이기주의자의 입장은 결과주의라고 불리는 입장의 한 사례이다. 결과주의는 다음과 같은 윤리적 논쟁의 특별한 구조를 지칭한다. 첫째, 우리는 무엇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또는 무엇이 그 자체로 선하다고 평가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행동, 실행, 기관들이 본질적으로 선한 것에 공헌하는가를 평가한다. 선택의 딜레마에서 옳은 것은 항상 선을 극대화하는 것에 의존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공리주의적 전통에서 유래하는데, 거기서 행복이나 복리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것은 사람의 행복이란 그 충하를 나눌 수 없다는 보편적인 생각과 결합된다. 고전적 벤담의 쾌락주의, 밀의 공리주의, 무어의 관념적 공리주의와 같은 근본적 공리주의 이론들은 ‘선’을 쾌락 또는 행복과 같은 실제적 정신 상태라고 간주한다. 대부분의 현

40) J. Elster, *The Cement Of Society, A Study In Social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52쪽.

41) K. Baier, *Egoism*, In Singer, P. (Ed.) *A Companion To Ethics*, Basil Blackwell Ltd., 1993, 197-198쪽.

대의 공리주의 이론들에서, 선은 예를 들어 만족이나 선호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정의된다. 도덕적 진퇴양난에서, 올바른 선택은 적어도 어떤 대안적 선택만큼 많은 선호나 만족을 가져온다.<sup>42)</sup>

스포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싶은 경기자의 이기적 욕망이 공정하고 좋은 게임에 대한 다른 경기자의 욕망과 같은 정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제기되는 문제는 공리주의자가 수용해야 하는 선호에 대한 비판적인 기준에 관련된다. 선호를 ‘분별해서’ 결과적으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게 하고 또 그것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밀이 제시한 고상한 쾌락과 낮은 쾌락간의 차이는 이러한 방향에 따른 추구일 것이다. 밀이 주장한 유명한 구절을 보면 “만족스러운 돼지보다도 불만족스러운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 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일 바보나 돼지가 의견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단지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측면에서 알기 때문이다.<sup>43)</sup>

공리주의에 대한 또 다른 비평은 그 이론을 실제로 올바른 선택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택적 진퇴양난에서, 우리는 불확실성의 환경 아래 놓이며 그리고 보통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에서 행동하게 된다. 프랑케나(Frankena)에 의하면 행위 공리주의자는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실천 가능한 옳은 것과 책임적인 것을 직접 공리성의 원칙에 호소함으로써 자기에게 당면한 가능 행동 중에서 어떤 행동이 악에 대한 선의 최대 균형을 결과할 것인가? 또는 할 것 같은가를 관찰함으로써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위 해야 하는가는 나의 행위가 악에 대한 선의 보편적 균형에 어떤 효과를 초래할 것 인가를 물어야지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악에 대한 선의 보편적 균형에 어떤 효과를 초래 할

42)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71-72쪽.

43) J. S Mill, *Utilitarianism*, London: Parker and Bourn, 1863. chapter II.

것인가를 물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최대한 보편적 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44)</sup>

스포츠에서 새로 개발된 수행강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수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약은 건강에 위험한가? 실행의 잠재적 강화는 얼마나 강한가? 만일 그것이 허용된다면 모든 사람은 약에 접근할 것인가? 대안과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지식의 결여 때문에 선호 충족의 극대화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수정해야만 한다. 모든 관련된 집단 사이에서 요구될 수 있는 것은 단지 기대 효용의 극대화이다. 어떤 경험을 쾌락이나 고통으로 규정짓는 것은 그 경험에 내포된 성질로서 쾌락,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벤담의 쾌락은 유일한 본래적 선이고 고통은 유일한 본래적 악이다. 이렇게 볼 때 쾌락의 경험이나 고통의 경험 속에는 쾌락이나 고통 이외에도 다른 구성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쾌락이나 고통만이 본래적 선과 악으로 만드는 요인이며, 이에 비례해서 선과 악의 정도도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45)</sup>

밀은 공리성의 원칙이 최대 다수의 최대선을 추진시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답변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실상 공리성의 원칙이 흔히 그런 방법으로 공식화되기도 한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 원칙을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작은 수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선의 양을 보태도록 요청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sup>46)</sup> 그러나 행복한 소수의 사람의 집단 보다 많은 불행한 경기자들의 집단을 선호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보인다. 그러한 결과는 각 단체의 모든 경기자에 대한 총 효용의 극대화로부터 효용의 총 합의 평균으로 변경함으로써, 즉 총 숫자로 순수 효용의 총 합을 나눔으로써,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일반 규범이 스포츠 경기에서 도덕

44) W. K. Frankena, Ethics, New Jersey: Prentice-Hall, 1963, 30쪽.

45) C.D. Broad, Five Types Of Ethical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6, 231쪽.

46) W. K. Frankena, Ethics, New Jersey: Prentice-Hall, 1963, 34쪽.

성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충분한가의 여부에 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우리가 선호충족에 의해서 선에 대한 형식적 정의를 수용하고 아울러 평균 효용에 대한 양의 측정을 도입하더라도 공리주의적 접근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 접근은 비강제적, 자발적 선택이나 인간적인 것, 권리와 의무를 지닌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인격으로서의 개념을 제공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다소 복잡한 선호 구조의 집합체, 선호들이 충돌되는 ‘경우’나 ‘장소’에 불과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관련된 모든 집단 사이에서의 선호의 축적일 뿐이다.<sup>47)</sup>

롤즈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sup>48)</sup> “올바른 결정이란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관리의 문제이다. 사회 협동체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한 결과이며, 또한 이러한 확대가 제구실을 하도록 공평하고 동정심을 가진 관망자의 상상력의 작용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하나로 합친 결과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사람들의 차이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더구나 선호충족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가 주어지면 공리주의는 도덕적 규범들 간의 차이, 즉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일상적 이해로 보이는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고 비판가들은 주장한다. 롤랜드는 의무를 넘어서는(초의무적) 행동들, 즉 의무의 요청을 넘어서는 행동들과 도덕성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간주되는 책무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이에 대한 뚜렷한 구별점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도덕적 삶에서 그러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sup>49)</sup> 공리주의는 우리가 도덕성의 영역이라고 이해하는 좁은 범위만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삶의 전 영역 곧 생활세계가 도덕성의 영역인 것이다. 즉, 그러한 개념들은 선호, 공정성과 같은 행동의 본질적 특징, 또는 (선한)인간이 되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인간에 대한 것이다.<sup>50)</sup>

47) S. Loland, *Fair Play in Sports*, London & New York, 2002, 27-28쪽.

48)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27쪽.

49) S. Loland, *Fair Play in Sports*, London & New York, 2002, 28쪽.

비결과주의(의무론, 직관주의) 이론들은 효용성 비교로부터 독립적으로 옳은 행동을 규정한다. 올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무한한 가치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칸트적 생각, 덕의 도덕적 적합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강조와 같은 ‘비결과주의의 규제’라고 불리는 것 안에서 우리는 행동한다. 비결과주의적 규제를 포함함으로써 공리주의의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 중 몇 가지는 치유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결과주의적 규범은 몇 가지 정의에 직면하면서, 관련된 모든 집단 중 평균 선호충족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정의 또는 스포츠에서 즐거움을 극대화하리라고 기대되는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해결책이 사람들에게 대한 비결과주의적 생각과 모순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대 로마의 검투사 경기 동안 구경꾼들의 즐거움이 검투사와 그들의 희생자의 고생보다 중요했다고 생각해 보자. 아직 그러한 실행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인간은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 이성의 사용가능성에 따른 도덕적 행위자로서 그리고 감정이 있는 존재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이해하는 경향을 지닌 사회적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제들은 여러 가지 스포츠의 윤리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공유된 규범을 위한 가능성을 갖게 한다. 보다 더 일반적 수준에서 관련된 모든 집단 사이에서 공유되는 규범의 가능성은 비결과주의적인 윤리적 계약이론의 핵심 사상이다.

계약론은 도덕철학에서 오랜 역사를 갖는다. 결과주의적 견해는 홉스적 전통에서 비롯되는데, 그에 따르면 이기적인 집단들은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 해결책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 각 개인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가능한 한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 합의를 원할 것이다. 비록 현실의 사회적인 규약들이 정말로 계약에 의해서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상호이익이 될 규약에 관한 이 협상을 하나의 공동체가 자체의 ‘사회계약’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51)</sup>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전통적인 도덕률을 대신하며, 상호이익

50) 같은책, 같은곳.

이 되는 규약들은 ‘도덕적’ 규범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비록 도덕적 규범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의 무-도덕적 전제들로부터 하나의 합리적인 제약으로서 생겨난 것”이라 해도 말이다.<sup>52)</sup>

논자는 규범들이 발생하는 과정이 공정성에 의해 권위를 얻는 비강제적인 동의와 같은 것에 기반을 둔다고 보는 롤즈와 입장을 같이 한다. 논의의 전체에서 좀 더 한정된 목표는 스포츠에서 공정한 경기 이론을 보다 진전시키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참가자들 사이에 에토스라고 불렀던 규칙들에 대한 공유된 해석의 종류를 통하여 실현되는 사회적 실행으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스포츠 에토스는 자발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전적으로 인간적인 사람들에 의한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고 교섭하고 개발되는 것이며, 스포츠에 대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윤리적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 대한 이해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안전한 합의를 추구하는 합리적 의사 결정자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규범들의 집합 또는 합리적인 합의의 토대로서 이성적으로 거부될 수 없는 최소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범은 스포츠 경쟁의 도덕적 정당화로서의 지침의 성격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과주의와 비-결과주의는 서로 간에 보완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함께 도덕적 합리성을 표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연적 의무와 특정한 실행과 연관된 특수한 책무 양자를 모두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책무는 자연적 의무와 함께 다른 책무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주의와 비결과주의간에 가능한 충돌에 대한 논의에서와 같이, 각각의 주장을 주의 깊게 비교해야 하고, 또 구성주의적이며 비형식적인 일반적 합의의 토대로서 합리적으로 거부될 수 없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

51) W. Kymlicka, ‘The Social Contract Tradition’, in P. Singer(ed.), *A Companion to Ethics*, Oxford : Blackwell, 1993, 189쪽.

52) D. Gauthier, *Morals By Agree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86, 4쪽.

## 6. 결론

좋은 스포츠 경쟁이라는 것은, 도덕적 담론의 견지에서 볼 때 스포츠 참여자들에게 받아들여진 정보에 의거하여 규칙을 기꺼이 고수하려는 태도이다.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요구되어지지 않는 행동의 다른 형태로서 이를테면 고차원적 전통들까지도 고려하는 스포츠 수행의 태도를 말한다. 칸트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전통은 공정성, 의무 그리고 책무 등이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가 강조하는 전통은 덕들의 적합한 연습과 배품 즉 종종 규칙이 고려하는 범위 너머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수행으로서의 에토스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들에 관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론을 기초로 하는 스포츠의 규칙에 대한 이해는 그 목표와 수단의 실행에 사회적 논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스포츠에서 ‘승리’는 논리적으로 스포츠의 규칙에서 정의된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질 때에만 그 가치가 보존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규칙에 따라 경쟁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길 수 없으며, 혹시 운이 좋아 그 표면적 목표에 도달한다 하여도 그 가치의 보존에 대한 담보는 상실 될 것이다. 이 규칙의 본질에 관하여 조명해 볼 때에, 규칙에 따른 경쟁은 승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에 그 최종목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는 스포츠 경쟁의 도덕적 딜레마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포츠 경쟁이 추구하는 최종목표의 하나인 승리 과정이 변칙적으로 돌아감을 허용하지 않고 합의된 철차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규칙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스포츠는 수단과 목적이 항상 동일한 궤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회적 논리를 가진 일종의 게임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적 구성에서 의도하는 의미는 효율적이고 경쟁에 참여

한 모든 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규범에 충실함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취하고자하는 목적을 위해 동의했던 규칙과 그 의미의 동일성은 특정한 규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규범적 규칙이 포함된다. 우리는 우리가 실행하는 것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규칙과 부합하는 규범을 지키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다.

스포츠의 특별한 사회적인 논리에 대한 생각은 관련된 경쟁자들 간에 스포츠에 관한 경험적인 실제적 이해에 의지해서는 곤란하다. 여기서 실제적 이해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게임의 논리에 기대는 것으로서 단지 재미를 위한 경쟁과 도전을 연상해 볼 수 있다. 스포츠는 특정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불필요한’ 장애를 극복하는 비-도구적 ‘대가없는’ 논리의 가능성을 그 규칙의 구조로 설정해야만 한다. 스포츠는 경쟁을 통해서 도전과 관심 그리고 흥미를 갖게 됨으로써 즐겁게 된다. 무엇보다도, 스포츠의 핵심은 노력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안양과학대학 · 중앙대학교 · 고려대학교)

참고문헌

- P. McIntosh, 『페어플레이』, 하남길 옮김, 1997.
- D. A. Hyland, 『스포츠 철학』, 송형석 · 이학준 옮김, 북스힐, 2006.
- A. MacIntyre, *After Virtue* (2nd Ed.),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 A. MacIntyre, *After Virtue* (2nd. ed.),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5.
- B. Suits, ‘The Elements of sport’ in R. G. Osterhoudt(ed.) *The Philosophy of Sport*, Springfield : Charles C. Thompson, 1973.
- C.D. Broad, *Five Types Of Ethical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6.
- D. Gauthier, *Morals By Agree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86.
- H. Edwards, *Sociology of sport*, Homewood, Illinois : The Dorsey Press, 1973.
- K. Baier, ‘Egoism’, In Singer, P. (Ed.) *A Companion To Ethics*, Basil Blackwell Ltd, 1993.
- J. Huizinga,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Boston: The Beacon Press, 1955.
- J. S Mill, *Utilitarianism*, London : Parker and Bourn, 1863.
-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J. Harman, *The Nature Of Mor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J. Elster, *The Cement Of Society, A Study In Social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J. Habermass, *Moral Consciousness And Cmmunicative Action*, (Tran., C. Lenhart And Shierry Weber Nicholson), Cambridge: Poity Press. 1991.

- P. W. Taylor, *Principle of Ethics*, Dickenson Publishing Company, 1975.
- P. J. Arnold, *Sport, Ethics & Education*, Cassell, 1997.
- R. C. Solomon, *Ethics: A Brief Intoduction*. New York: Mcgraw-Hill. ‘A Sportsmanship Brotherhood’ (1926) *Literary Digest*, 88(27 March), 1984.
- R. Butcher & A. Schneider, 32쪽. (In W. J. Morgan, K. V. Meier, A. J. Schneider, *Ethics in sports*의 쪽수로 표시한다. 그리고 J. W. Keating(1964), N. Dixon(1999), O. Leaman(1981)도 같은 형식에 따른다, 1998.
- R. L. Simon, *Fair Play: Sports, Values, And society*, Boulder: Westview Press, 2004.
- S. Kretchmer, ‘From Test To Contest: An Analysis Of Two Kinds Of Counterpoint In Sport’,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II*, 1975.
- S. Scheffler, *The Rejection Of Consequentialism*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S. Loland, *Fair Play in Sports*, London & New York, 2002.
- W. K. Frankena, *Ethics*, New Jersey: Prentice-Hall, 1963.
- W. Kymlicka, ‘The Social Contract Tradition’, in P. Singer(ed.), *A Companion to Ethics*, Oxford : Blackwell, 1993.

## On a moral justification in sports competition

Suk-Won Yim / Hwan Son / Woon Sung Cha

What is the 'correct action' in sports? Is there another standard for morals in the field of sports? This study tries to answer these questions assuming a distinction between 'correct action' in sports and the common society despite having the same root of action standards. Moreover, members of a common society are restrained being provided the standards of 'correct action' commonly known as written law. However, because not every law can be applied in the world of sports, ethical standards should be built on this standard. An individual may assume that sports fall into the range within a common society but a critical purpose of ethics is to find a rational basis of moral decision and state distinctly if recognized. Therefore, I will discus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moral characteristics of competitive sports will be defined followed by the discussion of maximizing satisfaction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good sports competition paradigm with the 'concept of play'. Third, the cultural and moral values of sports will be discussed and, fourth, prove the theoretical basis of moral justification in sports competition. Consequently, according to these considerations, sports have to set non-instrument non-priced logic that overcome unnecessary obstacle on the structure of sports rule in order to achieve a specific end. The sports give us a enjoyment by having challenges, concerns, and interests through a competition. Above all, I think that a endeavor get to the core of sports.

**Key Words:** Sports competition, paradigm, moral value, justification.

철학탐구 제27집

임석원 e-mail: siscia@naver.com

투 고 일	2010년 4월 14일
심 사 일	2010년 5월 8일
게재확정	2010년 5월 15일